

설교자: Andrew de Vries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 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2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3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선한 울음을 위해 멈추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는 영혼의 큰 슬픔으로 우는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예민한 사람이라 운 것일까요? 사실 느헤미야는 거칠고 타협할 줄 모르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괴롭히며 눈물짓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도 느헤미야와 동일한 슬픔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동일하게 선한 울음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여섯 장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재건이 쉽지 않은 일임을 발견합니다. 이 일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뒤 따릅니다.

1, 느헤미야 설교의 슬픈 소식들: 느헤미야가 운 까닭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단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너진 성벽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성벽과 문은 불타버렸습니다. 도시는 극심한 문제와 부끄러움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도시 외관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삶의 무너짐을 반영합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믿음도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갈망은 낮았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벽과 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과 문들을 재건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2,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감정적 반응: 느헤미야는 소식을 접하고 선한 울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것이 일시적인 반응이 아닌 계속되는 행위였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느헤미야는 교회에 관해 진심으로 걱정했음을 주목합니다. 예루살렘은 수사로부터 17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에게 교회는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에겐 그의 직업도 그를 편하게 해주는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상태보다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의 교회를 짓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삶 이후에도 남아있을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까? 비숍데일 개혁교회는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됩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상태는 느헤미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의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그토록 신경쓴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동일시하십니까? 그들의 기쁨은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그들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진 것을 굉장히 걱정하셨고 십자가에 죽으

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교회와 자신을 동일화 시키셨습니다. 그 분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해 돌보고 계십니다.

3, 우리 안에 소원을 갈망하는 느헤미야의 별

슬픔을 품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느헤미야서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성의 재건이 완성되었음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건의 시작은 눈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빈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슬픔과 설움을 가져다 주셔서 그 분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를 위로하는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가리키게 합니다. 그 분은 최고의 재건축자이고 개혁자이며 그의 사람들로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 분만이 유일하게 파괴된 곳을 다시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의 긍휼과 은혜로 무너진 곳을 대신 아름답게 재건하지 못할 곳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